민선 8기 지방채 발행 줄인다

올해 3350억원서 222억 축소… 도의회에 변경안 제출
제주도 "순세계잉여금 증가 원인… 재정 건전성 주력"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방채 발행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올해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지방채 발행규모를 222억원가량 줄이기로 했다.

10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의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8년 43.51%, 2019년 33.00%, 2020년 32.88%, 2021년 32.65%, 2022년 32.71%이다. 올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37.50%로 제주도는 이보다 4.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

또 제주도 지방채는 2018년 0원에서 2019년 1500억원, 2020년 2520억원, 2021년 3225억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도 지방채가 '0원'인 것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말까지 남아있던 외부차임금 1321억원을 전액 상환했기 때문이다. 원 전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지방채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이어 2022년 지방채 발행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62개 사업에 3350억원으로 확정했다. 제주도는 이달 이같은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 222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뺀 잔액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명이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잉여금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제주도의회에 202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채무관리 경직화와 미래 세수 활용도 저하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한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세수입 증가분을 가지고 제2회 추경에서 국채를 상환했다"며"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를 상황하게 되면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대로기자

열대야를 즐기는 시민들 열대야가 이어진 9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을 찾은 시민들이 분수대에서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상국기자

상반기 폐기물 위반 사업장 29개소 적발

제주시, 고발·과태료 각 12건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체 29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사업장 33개소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 등 제주시 관내 2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배출자 신고와 처리시설 신고 미이행 3개소, 폐기물처리 기준 위반 5개소가 적발됐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무허가와 미신고 운영 5개소, 폐기물 처리기준과 처리업자 준수 사항 위반 11개소, 폐기물관련 교육 미이수 등 5개소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사법처리 12건을 포함 영업정지와 과징금(1425만원) 등 14건의 행정처분 조치에 나섰다. 12건에 대해선 과태료(1350만원)를 부과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022 제주愛 빠지다 ❹ 일상이 여행인 '대세녀' 양선아 씨

"제주는 무릉도원, 이것이 '풍류'"

제주살이 중 한라산 윗세오름을 찾은 양선아 씨. 그녀는 '여행지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생활을 접고 과감하게 제주를 선택했다고 한다.

웹 개발자 그만두고 지난해부터 간호사 생활
해녀학교 졸업·해양 플로깅·책 발간 소망도
높은 집값·물가 제주살이 가장 큰 애로사항

삶의 중심에서, 진정한 자유와 가치를 찾아가는 행복한 '대세녀'가 제주에 산다. 주인공은 2020년 12월 31일 제주에 정착했고, 다음날인 2021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일을 시작한 당찬 30대다.

블로그 '대세녀의 자유 일상'과 유튜브 '대세녀'를 운영 중인 양선아(37)씨의 제주 일상은 행복한 여행, 그 자체다. 광주광역시 출신인 그녀는 '늘 여행지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히 도시생활을 접고, 제주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았다.

"새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죠. 서귀포에서의 삶은 마치 숲에서 사는 느낌이에요. 2020년 12월 다니던 직장(웹 개발자)을 그만두고, 지금은 그 전에 했던 간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과 숙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근무시간은 아침 6시~오후 2시로, 일과 후에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갖죠. 미뤄뒀던 책도 읽고 주말이면 한라산이나 오름 등 멀리 출사를 나가곤 해요."

그녀는 매일 사진기를 들고 자연은 물론 관광지, 카페 등을 돌며 일상들을 기록하는데 여념이 없다. 예전 도시에 살면서 시간에 얽매였던 긴장의 연속 대신 매순간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새벽 4~5시면 일어나 동네 월라봉에 올라 일출을 보고 일과를 시작하는 그녀는 '아침형 인간'이다. 그 부지런함은 서귀포시 SNS 서포터즈 활동까지 확장하며 그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제주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고, 앞으로 해녀학교 졸업과 바다에서의 플로깅 활동,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기록한 책을 내고 싶다는 소망도 밝혔다.

"제주살이는 천혜의 자연, 슬로우 라이프, 나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죠. 전 직장에선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모니터만 들여다봤죠. 가끔 창밖을 쳐다보면 채 한 뼘도 되지 않는 하늘만 보일 뿐이었죠. 건물로 가려진 뷰만 보며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었는데, 지금은 고개만 들어도 뻥 뚫린 하늘, 그리고 어디를 가도 잘 보이는 넘실대는 푸른 바다, 달콤한 내음이 물씬 풍기는 곳곳의 숲길들. 이곳이 무릉도원이구나, 이것이 바로 풍류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아직도 내가 제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그녀의 행복은 그냥 이뤄진 게 아니다. 제주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 도시생활과 거리를 둔 서귀포 외곽지를 택했다. 스스로 내면을 다지고, 씨앗으로 발아해 키운 레몬이며 갖가지 꽃나무 등 반려식물을 기르며 책임감도 키웠다. 그리고 앞으로 더 넓은 곳으로 자신과 반려식물들을 옮겨가기 위한 일들을 하나둘씩 계획하고 있다.

"요즘, 마당이 있는 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데 워낙 제주 집값이 높아 그게 제주 삶에서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죠. 페이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데 물가는 비싸기 때문에 제주 정착을 막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제주에서 살아보니 경제적으로 부족한 점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누리는 것은 더 많아요. 도시에서 쓰던 생활비 절반이면 여기에서 똑같이 누리며 충분히 살 수 있는 법을 터득했죠."

그녀는 용기와 도전으로 실천하며 어느 때보다 행복한 제주살이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제주 곳곳을 만날 생각에 일과 후 오후와 휴일을 기다리는 순간순간이 설렌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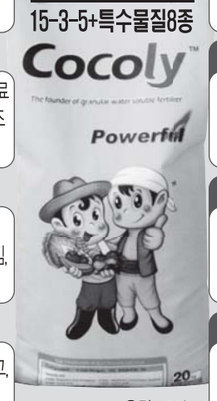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 · 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핵심물질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용량 : 20kg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au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밭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학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궁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함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신고번호 03-0182-2020-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예약 주문생산: 탐빛1호, 선킹,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